

## 법 어

전국의 청년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미래가 숨쉬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창립 92주년을 맞이하여, ‘21세기 청년, 효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효 본찰’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에서 개최하는 제31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자리에 동참하신 청년 불자 여러분의 건승을 부처님께 축원합니다.

청년 불자 여러분!

‘자성과 쇄신 결사’는 우리 불교가 처한 현실을, 누구를 탓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를 돌아보아 성찰하자는 것에 그 시작이 있습니다. 또한 수행과 기도정진을 바탕으로 사회의 각 분야에서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여 우리 민족문화를 지켜내고 한국불교의 자존과 존엄을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과 불자들에게 신뢰받는 국민종교로 올곧게 바로 서고,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교중흥을 이뤄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여러 난관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처한 현실은 부처님의 정법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픔이며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의 중추를 담당하는 청년불자 여러분!

대한불교청년회 초대 총재이신 만해 선사는

“성공보다는 옳은 일인가를 먼저 살피라.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는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먼저 살피지 말고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쉽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도 그 일이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면, 한때 성공을 하였을지라도 결국에는 파탄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기

에 “하늘과 땅에 비추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용감하게 추진하고, 가시밭을 걷고 칼날 위에 서서 정의를 위하여 싸운다는 통쾌한 느낌을 가지라”는 가르침처럼 한국불교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쇄신 불사로 청년 불자 및 사부대중과 함께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불자 여러분!!

법화경에 ‘일체세간법 개시불법(一切世間法 皆是佛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간의 일체는 모두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말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정과 일상을 벗어난 깊은 산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어느 곳이나 함께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21세기 청년, 효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제31차 전국불교청년대회는 이러한 뜻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불교청년회가 ‘청년불자 33대 서원’을 세워 수행 기도 정진하는 실천에도 고스란히 담겨있기도 합니다. 이는 청년불자 뿐만 아니라 현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청년 불자들은 부처님 정법을 이 시대의 화두와 내용에 맞게 대사회화 시키고 일반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 비록 한 순간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는 길이라면 희망찬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청년 불자의 본성이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한국불교의 중추를 담당하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나아가는데 총재인 본인도 청년 불자와 함께 그 길에 함께 할 것입니다.

불기2556(2556)년 6월9일  
대한불교청년회 총재 자승